금주의 법구-〈대장엄론경〉
오로지 말을 조심해라.
함부로 남을 모략하지 말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5일)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꽃비없는 거리서 '마음 연등' 밝힙니다

다시 부처님오신날이다. 한자리에 모여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다. 아득한 옛날에서 오늘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가슴 벅찬 날이다. 손에 손 연등 밝혀들고, 고운 노래 부르며 부처님 만나러 가는 날이다. 한자리에 모여 우리도 부처님 되는 날이다. 도량마다 종소리 북소리 염불소리 넘치고, 길에는 연꽃등 팔각등 장엄등 넘치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은 연등 밝혀들고 거리로 나갈 수도 없고, 얼굴 맞대고 부처님 노래를 부를 수도 없다.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없는 이 수상한 시절서 부처님오신날을 맞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 수상한 시절인연을 우리 모두의 오래된 과보로 받는다. 오늘을 아쉬워하는 대신 각자의 부처님 찾아 이 시절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 부처님 이름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며 오늘을 보내기로 한다. 아기부처님등 따라 거리를 걷고, 꽃비 맞으며 도반들과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오늘. 어수선한 마음 조용히 접고 작은 연등 하나 마음에 밝힌다. 오늘은 꽃비 없는 거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다. 나무석가모니불.

글=박재완 기자/그래픽=노덕현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국민과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길 발원합니다.

●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 5월 30일(윤 4/8, 토)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